

2025 일본입국심사

2025년 일본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위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전심사 시스템(Preclearance) 도입

2025년 1월부터 일본은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사전심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1] ^[2]. 이 시스템은 여행자들이 출발 공항에서 대기 시간 동안 일본 입국에 필요한 대부분의 이민 절차(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 확인 포함)를 미리 완료할 수 있게 합니다^[1].

주요 특징:

- 처음에는 대만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1] ^[2]
-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상 국가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1]
- 도착 시 입국 절차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예상^[1]

이 시스템은 현재 일본 입국 시 진행되는 서류 확인, 지문 및 얼굴 사진 수집과 확인 절차를 출발 공항에서 미리 완료할 수 있게 하여 일본 도착 시 입국 과정을 간소화합니다^[1].

전자여행허가제(JESTA/ETA) 도입

2025년에는 일본 전자여행허가제(JESTA: Jap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도입될 예정입니다^[3] ^[4]. 이 시스템은 미국의 ESTA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

-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들은 일본 방문 전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3] ^[4]
- 보안 강화 및 공항 입국 절차 효율화가 목적^[3]
- 2030년까지 완전히 구현되어 기존 비자 절차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예정^[3]

기타 입국 관련 변화

- 2025년에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입국 요건이 더 이상 없으며, 증상이 있는 사람만 예외^[5]
- 많은 국가의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일본에 체류 가능^[5]
- 2024년에 도입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원격 근무 가능^[5]
- Visit Japan Web 포털을 통해 개인 QR 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수 있음^[1] ^[5]

이러한 변화들은 일본이 2030년까지 연간 6천만 명의 방문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의 입국 경험을 개선하면서도 국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4].

2025 일본 입국심사 간소화

2025년 일본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위한 입국 심사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전심사 시스템(Preclearance) 도입

2025년 1월부터 일본은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사전심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여행자들은 출발 공항에서 일본 입국에 필요한 대부분의 이민 절차를 미리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특징:

- 여행자들이 출발 공항에서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 확인을 포함한 입국 절차를 미리 완료
- 처음에는 대만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 일본 도착 시 입국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일본은 2025년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들은 일본 방문 전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
- 입국 심사 절차 효율화 및 보안 강화가 목적

Visit Japan Web 활용 확대

일본 정부는 'Visit Japan Web' 서비스를 통한 입국 절차 간소화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

- 입국 카드, 세관 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 가능
- 개인별 QR 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심사대에서 간편하게 처리
- 자동화된 입국 게이트 확대로 대기 시간 단축

이러한 변화들은 일본이 2030년까지 연간 6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의 입국 경험을 개선하면서도 효율적인 국경 관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 한국인 일본 입국심사

2025년 한국인을 위한 일본 입국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사전심사 시스템(Preclearance) 도입

2025년 1월부터 일본은 한국인 여행자를 위한 사전심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6]. 이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공항에 일본 입국심사관을 파견하여 출발 전 대부분의 입국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함^[6]
-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 확인 등의 절차를 출발 공항에서 미리 진행^[7]
- 일본 도착 시 입국 처리 시간 단축 및 공항 혼잡도 감소^[6]

이 시스템은 양국 간 비즈니스 및 관광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6] ^[8].

한국인 전용 입국 레인 검토

일본은 한국인 여행자를 위한 전용 입국심사 레인 설치도 검토 중입니다^[6]. 이는 한국인 여행자들의 일본 입국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비자 요건

2025년에도 한국 국적자는 일본 방문 시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9] ^[10]. 입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체류 기간 이후 6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 소지^[10]
- 일본에서의 출국 증명(귀국 티켓 등)^[10]

공통 키오스크 시스템

2025년 초부터 나리타 및 간사이 국제공항에 새로운 전자 키오스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7]. 이 키오스크는 세관 및 입국심사를 위한 공통 시스템으로, 2024년 1월부터 하네다 공항에서 테스트 중인 시스템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양국 간 간소화 협정 가능성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여행자를 위한 간소화된 입국 절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8]. 이는 유럽의 쎅겐 협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양국 국민들이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8].

이러한 변화들은 일본이 국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1. <https://visasnews.com/en/japan-a-new-preclearance-system-for-foreign-travelers-in-2025/>
2. https://www.business-standard.com/finance/personal-finance/japan-to-ease-entry-for-tourists-with-pre-clearance-speed-up-immigration-124072200400_1.html
3. <https://ryukoch.com/en/blogs/2025-changes-japan-for-tourists>
4. <https://visaindex.com/blog/japans-upcoming-eta-system-a-comprehensive-guide-for-travellers/>
5. <https://japanspecialist.com/w/japan-holidays-2025-what-you-need-to-know-for-your-trip>

6.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4/09/2b35582c48c4-urgent-japan-considering-preimmigration-screening-for-visitors-from-s-korea.html>
7. <https://visasnews.com/en/japan-a-new-precleanance-system-for-foreign-travelers-in-2025/>
8.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73565.html
9. <https://www.hinterlandtravel.com/south-korea/destinations/japan>
10. <https://embassies.net/japan-visa-for-south-korea-citizens>